

프랑스 한국어 교육 및 교육과정 개발에 있어서의 쟁점과 과제

강미란 (르아브르 대학교)

본 토론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우선 2018-2019 년에 있었던 프랑스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안에 따른 한국어 교육과정에 대해 알아 본다. 그리고 프랑스에서의 한국 언어문화 교육의 쟁점 및 과제를 다뤄보도록 한다.

1. 한국어 교육에서 언어문화 교육과정 개발

1.1. 일반 중·고등학교에서의 한국어 수업의 예

대학교는 이미 오래 전부터 교양과목, 한국 언어문화 전공 및 실용언어과 등에서 한국어 수업을 해 왔다. 그러나 프랑스 고등학교에 한국어 수업이 정식으로 열린 지는 불과 11 년 밖에 되지 않았다. 대학 자체에서 수강 가능 과목을 정하는 것과는 달리 공립 고등학교의 경우 아무래도 교육부 및 그 학교 소속의 교육청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행정 절차 등이 무척 까다롭기 때문이다.

온갖 어려움 속에서 2011 년 보르도 한 고등학교에서 한국어 제 3 외국어¹가 개설되었고, 동시에 파리에서는 바칼로레아 준비반이 생겼다. 보르도의 고등학교처럼 한 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파리 근교 학생들 중 바칼로레아(프랑스 대학 입학 시험) 한국어 시험을 보겠다는 이들을 모아 학교 간 연계수업을 한 것이다. 그리고 이듬해에는 루앙이라는 도시에 한국어 제 3 외국어가 개설되었다. 2015 년에는 파리에 위치한 한 중학교에서 프랑스 최초로 제 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가 개설되었다.

2022 년 현재, 정식으로 중/고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곳은 보르도, 파리, 루앙, 크레테이유, 낭트, 마르세이유, 즉 6 개 도시 8 개 학교 밖에 없는 실정이다. 물론 프랑스 각지 여러 학교에서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경험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긴 하다. 그러나 이런 수업들은 학교 자체에서 따로 예산을 내어 특별활동 식으로 만들어 놓은 수업들이 대부분이다. 즉, 교육청의 정식 인가를 거쳐 각 학교에 정식 수업으로 배정됨은 물론 평가 결과가 학생들의 전체 성적에 반영되어 대학 입시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아닌 곳이다.

¹ 제 3 외국어 : 고등학교 때부터 배울 수 있는 외국어

제 2 외국어 : 중학교 때부터 배울 수 있는 외국어

제 1 외국어 : 초등학교 때부터 배울 수 있는 외국어

1.1.1. 교육 과정

1.1.1.1. 중학교

중학교의 경우 제 1 외국어와 제 2 외국어 수업이 진행되며, 둘 다 유럽공동참조를 기준으로 하여 기본기를 갖추고 해당 언어권의 문화에 대해 이해하는 수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제 2 외국어인 한국어의 경우 역시 다른 외국어와 마찬가지로 언어 기능 중 읽기, 텍스트 이해하기, 쓰기, 텍스트를 읽고 그에 합당한 반응하기, 듣고 보고 이해하기, 몇 문장 이상 계속해서 말하기, 대화하기를 훈련하고 평가받게 된다. 중학교에서의 수준은 유럽공동참조 A1-A2 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각 교사는 중학교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에 맞춰 각종 텍스트, 그림 및 사진, 오디오, 비디오 자료를 써서 수업을 하도록 되어 있다. 중학교 외국어 수업에서는 다른 과목 (프랑스어, 미술, 라틴어, 역사, 윤리)과의 융합 수업²도 중요시 되는데 크게는 다섯 개의 주제로 융합수업이 이루어진다 : 언어 및 문화 이해하기, 정보·통신·시민성, 환경문제, 문화와 예술 활동, 경제 및 직업 세계.

1.1.1.2.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의 외국어 교육은 교육부에서 지정한 고등학교 1 학년 교육 과정과 고 2-고 3 과정³을 따르도록 한다. 각 과정은 8 개의 중심 테마로 이루어지며, 그 중심테마에 맞는 세부적인 키워드가 주어진다. 외국어 담당 교사는 1 년에 3-5 개 정도의 테마를 택하고, 이 테마에 들어가는 키워드를 주제로 하는 사진, 그림, 텍스트, 오디오/비디오 자료를 준비하여수업을 하도록 되어 있다.

고등학교의 한국어 수업의 경우에도 8 개의 테마를 수업에서 다루되, 교사는 수업을 설계할 때 언어 자체에 대한 학습, 언어활동과 관련한 학습, 상호 문화와 관련된 학습이 골고루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언어 자체에 대한 학습이라 함은 단어, 문법, 발음, 철자의 숙련 활동을 말한다. 언어활동과 관련한 학습은 받아들이기(reception), 만들어서 내보내기 (production), 상호소통 (interaction), 조정 및 중재 (mediation),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리셉션에는 읽고, 듣고, 보고 이해하는 활동이 들어가며, 프로덕션에는 쓰기 활동은 물론 한 주제에 대해 계속해서 말하기가 들어간다. 상호소통의 경우 누군가와 여러 주제에 대해 대화하기, 즉 묻고 답하고 상황 설명 등을 하기, 대화 중

² 프랑스 교육부 중학교 외국어 교육과정 : <https://eduscol.education.fr/164/langues-vivantes-cycles-2-3-et-4>

³ 프랑스 교육부 고등학교 외국어

교육과정 : <https://www.education.gouv.fr/bo/19/Special1/MENE1901585A.htm>

끼어들기 등의 기술과 이에 필요한 언어 요소를 배우게 된다. 조정 및 중재는 한 학생 혹은 그룹이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다른 학생이 도와주거나 프랑스어나 제 3의 언어로 보충 설명을 해 주는 단계이다. 상호 문화와 관련된 학습에서는 한국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는 한국 문화와 프랑스 문화를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인식하고 각각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는 기회를 갖도록 한다.

물론 제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의 경우 한글부터 시작하는 초급자들이다. 따라서 앞서 설명한 고등학교 외국어 프로그램 중 ‘언어 자체에 관한 수업’, 즉 단어, 문법, 발음, 철자의 숙달을 우선시하게 된다. 언어 자체에 관한 수업이나 여러 표현에 대해서는 『한국어를 배웁시다! *Apprenons le coréen!*』라는 교재를 사용하고 있다. 이 교재는 2011년 처음으로 한국어가 고등학교에 개설되면서 대학과는 달리 고등학교 학습자들을 위한 한국어 교재의 필요성이 시급함을 느낀 대학 교수들과 한국어 교사가 모여 교재개발위원회를 결성하였고, 주 프랑스 교육원과 프랑스 언어문화 교육자 협회의 지원으로 2011년부터 계속해서 만들어오고 있는 프랑스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다. 2022년 현재, 한국어 국제 섹션 학생들 및 대학생을 위한 4권(B2-C1) 작업이 진행 중이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 1학년에서는 위에서 말한 교재 1권, 2-3학년들은 2권과 3권을 참고하며 ‘언어 자체에 관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한국어를 배웁시다! *Apprenons le coréen!*』의 연습문제와 문화 부분은 언어 수업 뿐만 아니라 문화 이해를 위한 교재로도 쓰이고 있다.

언어활동과 관련한 학습 및 평가 부분은 위에 언급한 8개의 테마 중 3-4개를 선정하여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어 수업 및 외국어 수업은 시퀀스라는 단위로 나뉘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한 시퀀스는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여러 개의 수업으로 이루어진다. 한 테마 당 한 개의 시퀀스로 한국어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프랑스의 초중고 수업의 경우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기본 교육과정과 평가 방법은 당연히 다르지만 세부적 내용은 교사의 역량이라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즉, 고등학교 외국어 교육의 경우 언어 자체를 위한 교육, 언어활동과 관련된 교육, 문화 관련 교육이라는 큰 틀과 8개의 테마 및 그에 관련된 키워드가 정해져 있다. 또한 유럽공동참조기반 평가표가 주어지고 교사는 이를 따라야 한다. 그러나 어떤 자료를 사용하고 어떻게 시퀀스를 짜느냐는 교사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 점이 바로 현재 한국어 교육의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이에 대해서는 위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다.

시퀀스에 사용되는 자료는 위에서 언급한 한국어 교재와 다양한 종류의 텍스트, 사진, 그림, 비디오, 오디오 자료 등이다. 단, 외국어 교육 목적으로 만들어진 자료는 안 된다. 되도록 수정은 피하되, 비언어 정보가 없는 오디오의 경우 화자의 말 속도를 조금 느리게 편집하기도 한다. 오디오나 비디오는 1분 30초로 편집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사진이나 그림, 도표 등은 그대로 쓴다. 글로만 된 텍스트의 경우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공백 포함 400자를 넘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고등학교 내신 성적 반영을 위한 한국어 평가 방법은 유럽공동참조를 근거로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평가표를 따르도록 되어 있다. 평가는 교사의 역량에 따라 수시로 진행된다. 프랑스의 중·고등학교 과정은 1년에 총 3학기 나뉘는데, 학교마다 지침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한 학기당 2-5번의 평가를 한다. 단, 바칼로레아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제 3 외국어(대부분 학교의 한국어 수업)의 경우 수시평가에서 받은 점수가

반영된다. 제 2 외국어로 한국어 바칼로레아를 보는 경우에는 각 학교에서 세 번의 시험을 치루도록 한다. 단, 교육개정 이후 코로나 사태가 터져 한국어 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어 바칼로레아 시험 역시 아직 제대로 자리가 잡히지 않았다. 따라서 2022 년 바칼로레아 역시 개정법을 따라 세 번의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닌 제 3 외국어 시험처럼 수시평가를 최종 바칼로레아 점수에 반영하기로 했다.

1.2.한국어 국제 섹션에서의 예

프랑스의 국제 섹션이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연계되는 프로그램으로서 이중언어 사용자 및 이중문화의 이해도가 높은 학생들로 구성된 반으로 위 엘리트 코스로 불리는 프로그램이다. 프랑스에서는 한불 수교 130 주년을 맞아 2017 년 양국의 교육부 장관이 국제 섹션에 관한 행정 약정을 서명하면서 한국어 국제 섹션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이중언어 및 이중문화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은 양국의 법령에 따라 양국 중 한 국가의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이 과정에는 아직 한국인 부모, 혹은 한불 가정 자녀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아직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이 재학 중이지는 않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파리 근교인 쿠르브부아의 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한국어 국제 섹션이 문을 열었고, 이듬해인 2018년에는 유치원에서도 한국어 수업을 개설하였다. 스트라스부르의 한 중학교에도 한국어 국제 섹션이 문을 열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 한국어 국제 섹션을 개설한 고등학교는 아직 없다.

1.3.교육 과정

한국어 국제 섹션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은 2016 년부터 시작되었다. 프랑스 교육부와 르아브르 대학 교수가 중학교 프로그램부터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한국어 수업의 경우 일반 중학교의 외국어 수업 교육과정을 참고하여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위에 말했듯 한국어 국제 섹션 학생들이 대부분 한국 학생들이라 진도를 따라오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 나라의 국제 섹션의 특징 중 하나가 일반 과목을 외국어로 가르친다는 것인데, 대부분은 문학이나 역사/지리 과목을 해당 외국어로 가르친다. 단, 한국어 국제섹션의 경우 중국어 국제 섹션과 마찬가지로 수학을 한국어로 가르치기 때문에 프랑스 교육과정에 맞는 수학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했다. 문제는 국제 섹션의 목표가 이중언어와 이중문화에 익숙한 엘리트를 양성하여 양국 (프랑스 혹은 한국) 중 한 곳의 고등교육기관에 들어가는 것인데, 프랑스에서 가르쳐야 하는 수학 수준과 한국의 수학 교육 과정 수준이 다르다는 점이다.

2. 한국 언어문화 교육의 쟁점과 과제: 표준화와 현지화의 문제

한국어 국제 섹션의 경우 아직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제 섹션의 가장 큰 문제는 우선 학생이 많이 없다는 것이다. 영어나

스페인어 혹은 독일어처럼 유럽어가 아니기 때문에 프랑스 학생들의 유치가 조금은 어려운 듯하다. 따라서 한불가정 혹은 한국 이민자 가정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 또 다른 문제는 국제 섹션을 연 학교의 학군 위치 및 수준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문제는 국제 섹션이라 함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연결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인데 아직 한국어 국제 섹션이 열린 고등학교가 없다는 것이다. 일반 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을 여는 것처럼 국제 섹션을 여는 것도 복잡한 행정상의 문제가 따른다. 물론 한국 교육부에서 모든 재정적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 학교나 교육청 측의 부담은 일반 한국어 제 2 외국어나 제 3 외국어 수업보다 덜할 수는 있겠다. 그러나 국제 섹션은 어느 한쪽만 나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육부와 프랑스 교육부 간의 긴밀한 네트워킹이 이루어져야 성사되는 문제인 것 같다. 하루빨리 한국어 국제 섹션이 발전하기를 기대해 본다.

국제 섹션과 또 다른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은 일반 중학교의 한국어 수업 개설 및 진행이다. 앞서 말했듯 한국어 제 3 외국어가 처음으로 열린 것이 2011 년도니 이미 11 년이 지났다. 그러나 그 후로 눈에 보이는 발전은 없는 듯하다. 여기에는 여러 문제가 있겠으나 그 중 대표적인 것을 꼽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를 개설하는 데, 특히 공립학교인 경우 아주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 학생이나 학부모만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한국 측에서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교양이나 특별활동이 아닌 과목 수를 늘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산 문제부터 학생 유치까지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한다. 게다가 몇 년 전부터 프랑스는 외국어에 대한 지원을 급격히 줄이고 있다. 이미 있는 수업들도 반 수를 줄이거나 아예 없애는 상황이라 옆친 데 덮친 격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한국어 정식 임용고시의 부재를 들 수 있다. 프랑스는 중고등학교 교사 자격 시험(CAPES)과 고등.대학교 교사 자격 시험(Agrégation)이 존재한다. 외국어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대부분 앞서 말한 두 개의 교육공무원시험을 거치고 중고등학교로 발령을 받게 되어 있다. 아직 프랑스 중등교육에서 한국어의 역사가 길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 교육부의 외국어 관련 철학 등과 상충되기 때문에 한국어에서 CAPES 나 Agrégation 시험을 보게 될지 의문이다. 이는 비단 프랑스 교육부의 정식 시험을 거쳐 수업을 하는 교사의 부재만이 문제가 아니다. CAPES 나 Agrégation 이 없기 때문에 한국어 교사들을 관할하는 정식 장학관도 없다. 현재는 영어 장학관이 한국어를 알고 있기는 하나, 한국어만을 위한 장학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고충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대학교와는 달리 중고등학교는 프랑스의 교육 문화를 잘 알아야 하고, 프랑스어 능력도 중요하다. 따라서 프랑스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현지 교사의 임용이 필요하고, 교사가 많아져야 프로그램 및 자료 공유도 원활해질 것이다.

셋째, 한국어 교육과정의 표준화 문제를 들 수 있다. 대학생이나 일반인을 위한 한국어는 교육 기관 자체에서 알아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다루지는 않도록 하겠다. 그러나 중등기관의 경우 교육부의 지침을 따라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문제는 한국어가 정식으로 개설된 학교 수가 적고, 따라서 교사 수도 적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프랑스 곳곳에 떨어져 있는 교사들은 혼자 찾아다니며

다른 언어 교사들을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에너지와 시간이 많이 드는 과정이다. 이 점은 한국어 정식 임용고시의 부재와도 관련이 있다. 만일 정식 임용고시가 있어서 프랑스 교육부에 정식 과목으로 등록이 되었다면, 한국어 장학사가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한국어 교사들을 위한 여러 교육이 실시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그렇지 않다. 교사가 알아서 자급자족해야 하는 상황이다. 물론 역량 있는 교사들이 한국어 수업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에서도 말했듯이 프랑스 교육의 특성 상, 가이드라인은 주어지되 수업을 이끌어 나가는 것은 전적으로 교사에게 달려있다. 따라서 가끔은 장학사가 참관하여 교사의 수업 태도 및 수업의 수준을 보는 것도 중요하다. 이는 다른 과목의 경우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그러나 한국어의 경우 담당 장학사가 없기 때문에 다른 언어 장학사에게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지도 자체를 받지 않는 교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각자 교사의 교수 방식을 존중해 줘야 하는 것도 맞지만, 적어도 한국어 수업에서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하는 일종의 표준 잣대가 없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장학사의 업무는 교사 지도 뿐만이 아니다. 한국어 교사를 임용하는 데 있어 역량있는 교사를 채용하는 데 큰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여러 학교에 한국어 수업을 개설하도록 학교 혹은 교육청 측과 협상을 하는 것도 장학사의 몫이다. CAPES 나 Agrégation 이 없기 때문에 장학사도 없고, 장학사가 없어 한국어의 발전이 더딘 것은 프랑스의 한국어 교육에서 가장 심각한 악순환이라고 보인다. 게다가 한국어를 전공으로 하는 대학생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들 중에는 한국어 교사가 되고 싶어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현재 한국어 교사 준비를 위한 석사과정은 존재한다. 한국어 교사 양성 과정도 만들어져 있다. 그런데 정작 이들이 졸업을 하고 시험을 볼 기회가 없다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넷째, 한국어 교육의 표준화 및 현지화를 목표로 하는 기관이 너무 많다는 것도 문제다. 어떻게 보면 한국어 교육에 관심을 갖는 정부 기관이 많아 오히려 다행인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현지에서 일을 하다 보면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다. 주프랑스 문화원 (문화체육관광부) 및 주프랑스 교육원(교육부)에서 각자 한국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물론 대상은 일반인이다. 청소년이 들을 수도 있지만 학교 외의 활동이니 굳이 여기서 다루지는 않겠다. 또한 각 지역의 한글학교 (주 프랑스 교육원, 재외동포재단 등 지원)에서도 많은 학생들을 유치해 수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한글학교 교재가 따로 있고, 수업이나 평가 방식도 일반 중고등학교와는 많이 다르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잠깐 언급한 특별활동 식의 한국어 혹은 한국문화 체험 수업이 있다. 한국어를 알리기 위해 전국 중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특별 활동이다. 이런 수업이 진행되다가 정식 수업 개설로 이어지기도 하니 중요한 것은 맞다. 그러나 특별 활동으로서의 한국어 수업은 프랑스 교육부의 지침을 따르는 일반 수업과는 또 다르다.

따라서 위에 언급한 다양한 기관에서의 수업이나 교사 활동과 일반 중고등학교에서의 수업과 교사 활동은 엄연히 차이가 있고, 또 다르게 인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일반 중고등학교에 정식으로 한국어가 개설되어 수업을 하는 교사들은 프랑스 교육부의 관할이다. 한국어 국제 섹션은 물론 일반 특별활동으로서의 한국어 수업 및 한글학교에 투입된 교사들은 한국의 교육부 혹은 문화관광체육부, 재외동포재단과 협업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각자가 속한 기관에 따라 소통 채널은 물론이고 미션도 다르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프랑스의 경우, 이 점이 간혹 간과되는 경향이 있는 듯하다. 예를 들어 주프랑스

대사관의 교육원에서는 한국어 교사들을 대상으로 워크숍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고 있다. 프랑스 전국에서 한국어 보급을 위해 힘쓰고 있는 교사들에게 좋은 기회다. 그러나 현재 교육원에서는 프랑스에서의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및 한국어 교재를 만들고 있기도 하다. 이 사업의 이유는 현재 프랑스에 한국어 교육과정 및 세부 프로그램과 프랑스 학습자들을 위한 교재의 부재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프랑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한국어 수업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나온 문제라고 본다. 한글학교에는 이미 한국에서 보급된 교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세종학당 교재를 쓰고 있는 곳도 많다. 특별활동의 경우 교사가 원하는 교재를 쓰거나 일반 중고등학교처럼 직접 교수 자료를 만들어서 쓸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한국어 교육의 표준화를 위해 프랑스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재를 만드는 것은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다. 교재는 많으면 많을 수록 좋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과정의 부재를 해결하고자 프랑스에서의 한국어 교육과정을 개발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 다른 기관의 경우는 몰라도 일반 중고등학교에서의 한국어 수업은 위에서 말한 교육부의 프로그램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프랑스 교육부에서 한국의 프랑스어 수업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급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런 문제가 생긴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다. 프랑스 교육부 관할인 일반 중고등학교 한국어 수업과 한국 기관 관할인 국제 섹션, 한글학교, 특별 활동으로서의 한국어 수업을 혼동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본다. 같은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지만 각자가 해야 할 일도 다르고, 각자가 따라야 할 원칙도 다르다. 이는 교사 스스로가 자신의 위치를 잘 찾아야 하기도 하지만 정부 기관에서도 서로 할 일을 존중해 주며 건전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할 일이기도 한 것으로 사료된다.